

영산강사업단, 여름철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 봉채영 기자 | ⓒ 승인 2025.04.29 17:50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진=영산강사업단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되었으며,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III-1지구 성산2공구, IV지구 2-3, 4-1, 4-2공구 등 총 4개 공구를 대상으로 품질 확보와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방자재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호우·침수 대비 배수시설 정비 및 태풍·강풍 대비 시설물 결속상태 보강, 무너짐·매몰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품질과 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붕괴, 인접건물 및 가설구조물 손상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은 “우기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 없는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채영 기자 bcy2020@naver.com